



# 姜節婦

**홍살문** 을 세워서 “이 집에 효자나 節婦가 났습니다”고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다. 효자와 절부를 존경함으로써 일반이 이를 본받게 하려는 사회정책이었으니 요즘 장한 어머니나 장한 시민을 표창하듯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끝까지 효도하기도 어렵고 守節하기도 어려웠으니 그래서 옛부터 끝이 중요하다(貴終功)느니 行百里者 半九十이니 하는 말들이 전해 내려 온 것이리라. 즉 백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90리 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절반밖에 안갔다고 생각하자는 뜻이다.

세종대왕 때 이야기인데 어느 곳에 아주 절세의 미인이 있었다. 검은 머리 붉은 뺨에 하얀 이, 거기가 문밖에 신발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는 소리까지 들은 정숙한 처녀였다. 사방에서 물려오는 청혼을 모두 물리치고 아버지 姜氏는 딸을 무관 河挺이라는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신랑 하씨는 士禍에 연루되어 죽고 말았다. 님을 산소에 묻고 돌아선 부인 강씨는 죽음을 무릅쓰고 수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맹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젊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고 측은하게 생각한 시어머니는 은근히 개가하기를 바라고 말을 붙이면 듣기도 전에 강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펄쩍 뛰는 것이었다.

어느날 그 고을 소문난 부자집에서 돈으로 강씨의 마음을 사려 했다. 강씨는 갑자기 은장도를 꺼내 가 날픈 자기 손가락을 자르더니 혈서를 써서 남편 무덤 앞에 갖다 놓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알려져 마침내 사

또(縣監)의 귀에 들어갔다. 사또는 이 고을에도 절부가 났다고 해서 감격한 나머지 모든 여인은 모름지기 강씨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바람에 개가하려던 고을의 다른 과부들이 개가도 못하고 주춤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씨를 가장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시어머니였다. 절부 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만일 나라에서 홍살문이라도 세워주는 날이면 이 가엾은 것이 평생을 홀로 지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하루 빨리 무슨 방도를 세워야 했다.

궁리 끝에 시어머니는 몰래 동네 총각 머슴을 불러 컵속말로 무엇인가 속삭였다. 내용인즉슨 총각이 이른 저녁에 며느리 방 다락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며느리의 잠자리를 엿보아 달려들라는 것이었다. 총각은 물론 승락했다. 소문난 미인을 가지라는 것인데 마다할 하능의 이유가 없었다.

작전대로 총각은 강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락에서 뛰쳐나와 강씨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깜짝 놀란 강씨는 소리를 질렀으나 사나이의 손에 틀어막힌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일어나려 했으나 억센 팔에 안겨 꿈쩍할 수가 없었다. 이때 사나이는 나직히 강씨의 귀에 이런 말을 했다.

“人生一世塵寄草”

즉 사람은 한 세상 풀잎에 묻은 티끌과 같은 것인데 당신이 수절해서 누구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강씨의 몸에서는 일시에 힘이 빠지는듯 하였고 그렇게도 뚜렷하게 보였던 옛님의 얼굴은 멀리 사라져 가기만 했다. 이리하여 강씨는 “원앙 이불 속에서 꿈같은 하루 밤을” 새고 말았



으며 그렇게도 굳게 맹세했던 절개는 하루 밤 사이에 녹아서 물이 되고 말았다.

강씨가 변절했다는 소문은 그녀가 은장도로 손가락을 잘랐다는 소문보다 몇배나 더 빨리 고을에 퍼져 나갔으며 그녀를 칭찬했던 것보다 훨씬 큰 비난의 소리가 강씨의 귓전에 들려 왔다. 그러나 강씨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간밤에 쳐들어온 사나이 밖에 없었다. 한시도 그이를 못보면 죽어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강씨와 노총각은 새 살림을 차리고 오손도손 부럽게 살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으나 강씨는 조금도 패념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절부의 이야기를 적은 「稗官雜記」라는 야사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강씨의 節行이 하루 밤사이에 淫行으로 변했구나. 만일 죽은 남편의 넋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남은 몸 따라 죽겠다던 강씨의 첫마음은 어디로 가고 사나이의 단 한마디 ‘人生一世塵寄草’에 절개를 꺾음은 무슨 일이고, 개 돼지 같도다. 옛 성인의 말씀에 ‘끝맺음이 중요하다’고 한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姜節婦의 이야기는 반드시 강씨를 나무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당초 조선왕조가 부인의 개가금지를 법으로 정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반대했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남편이 죽은 뒤 3년간만 수절하게 하고 그 이후는 개가하도록 허가하자고 주장하였고 또 어떤 이는 아예 개가는 전면적으로 허

가하고 三嫁할때만 금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가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특히 담장을 넘어 들어온 자에게 절개를 잃은 부인에 대해서는 特一淫婦라 하여 징역형에 처하자고까지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이런 찬반 양론 때문에 조선왕조는 현명하게도 법으로는 금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금한다는 이른바 불금의 금(不禁之禁)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으니 조선 5백년 동안 한국여성의 절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굳어져서 오늘의 사회 질서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살문 하나가 남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개를 굽히지 않아야 된다는 사회 통념을 갖게 했던 것이다. 강절부의 이야기에서 한 없는 인간애를 느낌과 동시에 여인이 지켜야 할 道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



## 朴成壽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한국사학회 이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現)  
한국장신문화연구원  
교수